

회생절차 거래처, 물품공급 계속해도 될까?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개인사업자나 소자본 기업은 물론이고 내로라하는 규모의 기업들까지 법원을 통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다.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그간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왔던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에 예정하고 있던 물품의 공급 또한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큰 고민에 휩싸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공급된 물품대금은 그 이전에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물과는 별개로 다른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해 전액 변제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의 진행과 관계없이 채무자인 거래처가 언제든지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을 '공익채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2

호)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 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동법 제179조 제8호)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동법 제179조 제8의2호)에 해당하지만 하면 된다.

특히 해당 물품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필수적이어서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 중에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쌍무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계약의 상대방인 회사의 채권 역시 공익채권이 된다(동법 제179조 제7호). 설령 위 경우들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도 공익채권이다(동법 제179조 제12호).

통상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뤄지고 나면 채무자 회사가 영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게된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자체가 터무니없이 법원이 신속하게 이를 기각하지 않

는 한 그 사이에 물품을 공급한 회사의 물품공급대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론 공익채권조차 변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라면 법원이 채무자회사에 대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결국 파산절차로 들어서게 되면 아무리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에 공급한 물품의 대금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전액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기 이전에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회생담보권, 회생채권과는 달리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법원이 채무자회사에 대해 영업에 필수적인 공익채권의 변제를 위한 일부 자금의 차입을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권 회수를 도모해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사업의 존폐를 좌우할만한 거래처가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면, 바로 물품공급을 중단하기보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공급된 물품들의 대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공익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여력이나 자금 유통이 가능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고사 위기 코인거래소



기지수첩
안승진 (금융부)

금융당국의 법인 가상자산 거래 단계적 허용 방안이 좌초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다. 조기 대선 혹은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들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확대를 기대했던 거래소들에는 아쉬운 소식이다.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했던 것은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개인 투자자에게도 이롭다는 주장이 우세해졌다. 법인 투자자의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의 과도한 가격 변동을 억제할 수 있

어서다.

올해 초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시장에서는 큰 기대감이 모였다. 그러나 탄핵 국면으로 정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빠르게 잦아들었다. 특히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의 아쉬움이 컸다.

국내에서 실명 계좌 인증을 통한 원화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5곳이지만 거래량 1위와 2위 두 곳이 거래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가 잦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거래소로 몰려서다. 각 거래소가 수익을 수수료에 의존하는 만큼,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거래소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 해킹 피해가 늘어나는 것 또한 일부 거래소에는 큰 부담이다. 빈발하는 해킹으로부터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 인력을 확

충하고, 거래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선 다수의 거래소가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시 독과점 해소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독과점 해소를 위해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업계에서는 법인 거래를 허용되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고사(枯死) 위기의 중소거래소들도 시름을 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래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요한 경쟁력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정쟁을 떠난 정치권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aj123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4일 (음 2월 2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삶의 중심에 자신을 뒀다. 48년생 수영수수가 물을 두려워한다. 60년생 여류가 있다면 친구들에게 인색하지 마라. 72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84년생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자.



37년생 멀리서 반가운 친구가 찾아온다. 49년생 아직보다는 부족한 공부 하라. 61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73년생 살고 금방 달아나지 말고 진중히 생각. 85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



38년생 노력을 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50년생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62년생 기대를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 74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86년생 인간의 보편적 가치는 신용에서 나온다.



39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날음이 없다. 51년생 아름다운 시를 좋아한다고 다시 인이 되지는 않는다. 63년생 사람을 봐가며 떠나라. 75년생 처음이 어렵지만 두 번째는 쉬워질 수. 87년생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40년생 봄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상생생. 52년생 근거 없는 구설이 발생. 64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76년생 소통을 할 때는 조심스런 마음을 갖자. 88년생 확실한 거절이 상대를 지치지 않게 한다.



41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서 가라. 53년생 가족의 평화가 나를 이끄는 지팡이. 65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77년생 살아가면서 빠지지 않는 건 대화이다. 89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42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54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 66년생 몸이 멀리 가니 마음도 멀어진다. 78년생 상대에게 긍정적인 마음은 고통을 불러온다. 90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



43년생 진실은 알아도 떠들지 말아야. 55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내라. 67년생 흉년에 땅을 사면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 79년생 물고기를 잡고나면 통발을 잊어 버리니 주의해야. 91년생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에 가서 분골이.



44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는다. 56년생 남의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라. 68년생 건강상 신체에서 보석비가 내린다. 80년생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해야 발전. 92년생 꽃이 피는 시기는 나무마다



45년생 어제 본 그 사람은 있어버려라. 57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찾아라. 69년생 돈을 사랑으로 대해보라. 81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93년생 나이가 있어도 에디스처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46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58년생 숨은 실력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70년생 기초를 두고 계획을 세워라. 82년생 속삭이는 감언이설 꼬임에 순진하게 넘어가지 마라. 94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겨주 하라.



47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 내어 일을 추진하자. 59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71년생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지 마라. 83년생 좋은 꿈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라. 95년생 현재 속에서 산다는 것이 늘 어렵지만, 미래는 오기 마련.



김상회의四季

재물복 이루어주는 등 공양

옛날 사위 성에 난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가난했던 난타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돈 한 푼을 가지고 기름집에 갔다. 기름집 주인이 선의를 베풀어 난타는 한 푼이 넘는 기름으로 등 공양을 올렸지만, 밤을 넘기기는 힘든 양이었다. 그러나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왔을 때 꺼지지 않은 등불은 난타의 등 하나뿐이었다. 부처님은 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올린 공양이라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칭송하셨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도시의 거리와 절에 가득한 등을 볼 수 있다.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올린 등 공양이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원을 담아서 등을 올린다. 살림살이를 풍족하게 만들어 달라고 재물을 빌고, 아이들 성적이 더 좋아지기를 빈다.

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쾌유를 기원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는 극락왕생의 마음을 담는다. 등 공양에 담은 기원의 마음은 고스란히 부처님에게 전해진다. 불경에 보면 공양의 공덕은 무량하다. 무량은 헤아리기 힘들다는 뜻이다. 마음을 담은 공양에는 그토록 많은 부처님의 가피가 내린다. 재물을 원하는 사람에겐 재물이 찾아오고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의 기쁨이 찾아온다. 아이는 공부에 눈을 뜨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 등 공양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기 때문이다. 등 공양의 역사는 길고도 오래다. 연등 행사는 삼국시대에 이미 성대하게 열렸다는 기록을 역사서에서 볼 수 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내내 연등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이면서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행사이기도 했다. 세상살이가 어려워지는 현실이지만 희망의 마음, 맑은 기운으로 연등 행사는 더 확산하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8	4	3	1
8							
7		4		3			
3	7				6		
		6			2		9
			9	6			8
							3
9	7	3	1				2

		9	5			7	3
			8	1			
	1					8	
		7	9				2
2					3	9	
		2					6
				6	8		
8	6				2	3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2	9	5	7	8	1	6	3	4
8	7	1	2	7	9	8	9	7
8	7	1	9	6	5	1	2	1
6	8	2	9	1	6	9	7	1
1	1	6	6	7	9	2	8	9
7	9	9	2	1	8	1	6	6
9	2	8	6	6	7	1	9	1
9	2	6	1	9	2	7	6	8
1	1	6	4	8	5	1	6	2

7	1	6	2	6	1	9	8	9
6	2	9	8	9	1	7	8	1
8	9	1	9	6	7	2	1	6
1	8	6	6	9	9	1	7	2
6	9	7	1	1	2	8	6	9
2	1	9	7	8	6	1	9	6
9	7	8	6	2	8	9	1	1
9	6	2	1	1	8	6	9	7
1	1	6	1	9	7	9	6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3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4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